



# 주스토(JUSTO) 타카야마 우콘(高山右近) 으로부터의 메세지



자신을 낮추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한  
타카야마 우콘(TAKAYAMA UKON, 1552~1615년)



Bronze statue of Ukon (by Yasutake Funakoshi, The Museum of the 26 Martyrs in Nagasaki)

일본의 천주교회는 초창기부터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이례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 Xavier)에 의해 전해진 복음은 전국으로 퍼지고, 약40년 동안 신도수는 300,000명을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태동 한 지 얼마 안 되는 1587년, 당시의 권력자 토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 박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17세기 초 에는 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인것이 밝혀지면 그 가족까지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금교정책은 1873년까지 약 280년이상 계속되었으며, 이 정책 하에 일본의 교회는 20,000명이상의 순교자를 냈다라는 설(說)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아래서도 일본의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으며, 박해가 시작된 17세기 초 부터 250년이상, 신도를 돌보는 한명의 사제, 한명의 수도자도 없는 교회였지만 신도만의 힘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켜내었습니다.

## 우콘(右近)의 생애

기리시탄 다이묘(大名)로 알려지는 주스토(Justo) 타카야마 우콘 (高山右近)은 일본교회의 초석을 다진 사람입니다. 그는 16세기 후반, 전국시대(戰國時代) 후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다이묘(大名)중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친 다리오와 함께 예수회 선교사를 만나 세례를 받습니다.



The title page of "DOCTRINA CHRISTAM" published in 1600 from Bensei Publishing



Catholic Church of Takatsuki where Takayama family lived for over 13 years.

타카야마 우콘 (高山右近)은 전국시대 (戰國時代) 를 평정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와, 그의 후계자 히데요시의 종신으로 활약하고, 그들이 일본 전체의 권력을 장악하는데 공헌을 합니다. 그러나 1587년,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 이해를 표시해 온 히데요시가 돌연 종교 정책을 전환합니다. 그는 선교사의 추방을 명령하고, 교토와 오사카의 성당을 파괴하며, 기리시탄

다이묘들에게 신앙을 버릴것을 강요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우콘(右近)은 기리시탄 다이묘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영지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히데요시의 사후, 전국을 장악하며 에도 막부를 수립한 토쿠가와 가문은 그리스도교의 금지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콘(右近)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에도 막부는, 1614년, 300명 이상의 신자들과 함께 그를 필리핀으로 추방합니다. 필리핀의 마닐라에 도착한 우콘과 신자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콘(右近)은 곧 병을 얻어 도착한지 40여일후인 1615년2월3일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갑니다. 그의 장례는 필리핀의 국장으로 치루어졌고, 그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죽음 직후부터 타카야마 우콘(高山右近)은 순교자로서의 성망이 높았고, 현재, 일본의 교회는 필리핀의 교회와 협력하면서 우콘(右近)의 시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콘의 현대에의 메세지 선택의 원리

타카야마 우콘(高山右近)은 당시의 유력한 지배 계급에 속하는 무장으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기로에 몇 번이나 서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치열하게 다투는 그 최 일선에도 서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층에 속하는 신자로서 어쩔수 없는 선택과 결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콘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리기 위한 명확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할 인간의 운명까지도 취해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우콘의 원리였으며, 우콘은 그것만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거기에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행복의 길이라는 신념뿐이었습니다.



Portrait of Ukon (a part of mosaic in the Jesuit Church in Santa Cueva de Manresa, Spain)

1578년, 타카야마 우콘(高山右近)이 섬기던 아라키 무라시게 (荒木村重)는 맹주였던 노부나가와 결별하고 자신의 유력한 부하 우콘에게도 노부나가와의 결별을 요구합니다. 그로인하여 우콘은 깊은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주군인 무라시게 편에 서면 교회와 선교사들이 노부나가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고, 노부나가 편에 서면 무라시게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자신의 장남과 여동생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한 무라시게를 지지하는 아버지 다리오와의 대립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콘이 이러한 괴로움을 안고 기도해 기도를 거듭한 끝에 노부나가 편에 가담하게 되자 무라시게는 자신의 패배를 깨닫고 우콘의 장남과 여동생을 우콘에게 되돌려 줍니다.



Marble statue of Ukon (by Nicolao Arrighini, Catholic Church in Takatsuki)

1587년은 우콘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결단의 때가 됩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 히데요시가 그리스도교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히데요시는 우콘에게도 그리스도교와 결별할 것을 명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영지 몰수와 추방을 할 것을 선고합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교회와 결별을 한다면 더한 영달이 우콘을 기다리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생활하기에도 곤란한 비참한 인생이 우콘을 기다리게 됩니다. 히데요시의 명령을 전달하러 온 사자에게 우콘은 무기를 지니지 않고 히데요시를 방문해 자신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덧붙이지만, 우콘은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되고 방랑의 몸이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사후, 정권을 잡은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그리스도교 금교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우콘에게 국외 추방 처분을 명합니다. 1614년11월8일, 나가사키항을 출발해서 필리핀의 마닐라에 도착한 우콘은 도착하자마자 곧 위독한 병을 얻고, 1615년2월3일, 주님의 품으로 떠나갑니다. 추방을 당하고 이국의 땅에서 객사 한 우콘은 죽음 직후부터 마닐라에서 순교자로서의 성망이 높았고, 현재, 일본의 주교협의회는 우콘을 순교자로서 시성 신청중에 있습니다.

## 내림의 길

타카야마 우콘이 살아간 16~17세기, 격동의 전국시대(戰國時代)후기의 일본은 능력 있는 야심가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꿈틀거리던 시대였습니다. 사회의 기운 또한 신분 향상을 추구하고 위 만을 노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콘은 보다 높은 삶을 추구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콘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에 현혹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참된 행복을 볼수 있는 눈(힘)을 계속해서 길렀습니다. 우콘에게 있어서 선택해야 할 길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주님을 따라서 내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나 위로 오르고 싶어하던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우콘(右近)은 내림의



Stone statue of Ukon (by Masayoshi Abe, Cathedral of Osaka)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을 거듭하면 할수록 우콘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가난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콘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져 갔습니다. 우콘이 선택한 내림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내려 가면 거기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내림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서 더욱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하시고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엎드려 사는 사람이야 말로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여러가지 가치관 앞에서 선택을 재촉 당하는 현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잘못할 일 없이, 곧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콘 (右近) 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